

The Gospel of Mark

Sermon 56

Title: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Scripture: Mark 12:28-34

Date preached: October 1st 2023

Scripture: Mark 12:28-34

28 Then one of the scribes came, and having heard them reasoning together, perceiving that He had answered them well, asked Him,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of all?”

29 Jesus answered him, “The first of all the commandments *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30**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31 And the second, like *it*, *is* th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There i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32 So the scribe said to Him, “Well *said*, Teacher. You have spoken the truth,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no other but He. **33** And to love Him with all the heart, with all the understanding, with all the soul, and with all the strength, and to love one’s neighbour as oneself, is more than all the whol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34 Now when Jesus saw that he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But after that no one dared question Him.

28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30**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1**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33**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의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4**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후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Review

Before we examine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 looked at in our last study.

As I'm sure you remember we are still on Tuesday of Passion week. It's an event filled day so Mark, who is usually known for his brevity devotes a large section of his passion week narrative to this important day. In fact his coverage of the events of Tuesday last from verse 20 of chapter 11 all the way to the end of chapter 13.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many significant encounters Jesus had on this day.

오늘의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주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직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간결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Mark는 고난 주간 중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 중요한 날에 상당 부분을 할애합니다.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그의 기록은 11 장 20 절부터 13 장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날 가지

신 많은 의미 있는 만남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I spoke to you before about how scholars refer to this portion of Mark as the “Controversy dialogues.” We have seen over the past few weeks what an appropriate title that is. We have witnessed on multiple occasions how the Lord Jesus was approached and challenged by various combinations of Jewish leaders. These challenges to His authority and right to teach and preach came through a series of difficult questions. Those posing the questions sought a legitimate reason to either arrest Him or else ridicule Him so that He lost the support of the common people. Today we come to the fifth and final question. As we shall see it's a little different to the other more combative exchanges. But before we look at today's question let's briefly look at the exchange we examined last week.

Jesus is still somewhere in the temple complex when He is approached by a group of Sadducees. These men were the leaders in the temple and held prominent positions of power especially in the Sanhedrin. We might characterize them as being well-educated, sophisticated, wealthy, haughty and prideful. They were also pro-Rome and this along with their haughty and aloof attitude meant that they were hated by the common people. They also held a number of beliefs that also separated them from other Jews and sects in Israel such as the Pharisees. The two most important differences in respect to the question they asked Jesus were as follows. Firstly, they only believed the first f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the books written by Moses were God's revelation. Secondly, they denied that there was any kind of resurrection or after life.

So a group of Sadducees come to Jesus with what they think is an impossible question for Him to answer. This is of course intentional. They want to discredit Jesus and reveal him as being an invalid teacher to the people for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question they pose comes wrapped up in a hypothetical situation in which a woman ends up marrying seven brothers. To modern readers this whole situation seems preposterous, but it was actually what God had commanded. It was known as the law of levirate marriage and it is laid out in the book of Deuteronomy (25:5–10). The law of levirate marriage served two purposes. Firstly it preserved widows from becoming destitute. Secondly it was designed to provide an heir for the dead husband. It worked in the following way.

If a husband died without having a male heir then one of his unmarried brothers would marry the widow in the hopes that he could provide a male heir. This son would take up his father's name and receive the inheritance rights. So in the situation the Sadducees have laid out this process has been repeated six times. What the Sadducees wanted to know was to which brother the woman would be married in the resurrection. Remember that they didn't actually believe in resurrection because they found no reference to it in the writings of Moses. So their question is intended to demonstrate the foolishness of the whole concept of resurrection.

Jesus answer to them is short and cutting. They were badly mistaken. They were ignorant of God's Word and dismissive of God's power.

Firstly they were wrong in their thinking about the institution of marriage. Marriage will exist only whilst we are here on earth. It will not be a part of eternity. So this hypothetical woman will not be married to any of the seven men. Secondly Moses had actually taught about the reality of resurrection. Jesus directs them to the burning bush incident (Exodus 3).

What's important in this passage is the way that God speaks about the patriarchs; Abraham, Isaac and Jacob. These men had been “dead” for a long time. But God tells Moses that He is the God of these men not that He was the God of these men. This means that Abraham, Isaac and Jacob are not dead, they are alive and living in relationship with God.

So once again the Lord Jesus could not be trapped, ridiculed or made to look like a fool. On this

occasion it was the Sadducees who were made to look like ignorant fools.

Today we come to the final question leveled at Jesus. It concerns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이전에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논쟁의 대화” 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것이 얼마나 적절한 제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그룹의 유대 지도자들이 주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도전하는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가르치고 설교할 권한에 대한 이러한 도전들은 일련의 어려운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분을 체포하거나 조롱하여 그분이 대중의 지지를 잃게 만들 이유를 찾고자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전의 격전적인 대화와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의 질문을 보기 전에 지난 주에 살펴본 대화에 대해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 무리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을 때 그분은 아직 성전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이었고 산헤드린에서 중요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세련되고, 부유하고, 거만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친로마주의였고, 이는 그들의 거만하고 냉담한 태도와 함께 일반 대중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다른 유대인 및 종파와는 구별되는 여러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책, 즉 모세가 기록한 책만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어떤 형태의 부활도 없고 죽음 이후의 삶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물론 이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무능한 선생임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한 여성이 일곱 형제와 결혼하게 되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역연혼 levirate marriage 으로 신명기(25:5-10)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법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과부들이 궁핍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둘째, 죽은 남편에게 상속자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남편이 상속인이 될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미혼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인을 제공하기 위해 미망인과 결혼했습니다. 태어난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상황에서는 이 과정이 여섯 번 반복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부활 때에 그 여자가 어느 형제와 결혼할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에서 부활에 관한 언급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부활 개념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간단합니다. 그들은 크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첫째, 결혼 제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일부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상의 여자는 일곱 남자 중 어느 누구와도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실제로 부활의 현실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출애굽기 3 장).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말씀하

시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주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도 조롱당하지도 바보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무지한 바보처럼 보인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28 Then one of the scribes came, and having heard them reasoning together, perceiving that He had answered them well, asked Him,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of all?”

We come now then to the final controversy dialogue between the Lord Jesus and the Jewish leaders. As we shall see there are som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previous two challenges and this one. The first difference concerns the number of accusers that are involved. In the previous two cases Jesus was approached by groups of men (the chief priests, scribes and Pharisees and then the Sadducees). It is of course far more intimidating to be surrounded by an irate crowd of people. Here though a single scribe comes to Jesus. Matthew in his account of this story suggests that the scribe came and spoke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harisees (Matt 22:34-35). Mark however presents this as being this individual scribe who comes seeking an answer. This simply reflects Mark's concern for individuals.

So who were the scribes? The scribes were the lawyers or legal experts of Jesus day. They were called by Jewish writers, “the schoolmasters of the nation.” Many of them were also Pharisees. They performed two important functions in society. Firstly it was their job to study, transcribe and write commentaries on God's law. Secondly they would be called upon when people needed documents to be written, or when people needed legal advice, or a legal term to be explained.

The next big difference for us to note regards the approach, or attitude of the scribe. The previous encounters have been typified by a hostile, challenging approach to Jesus. Those facing Him were not there to discover the truth, they were there to try and trap or trick Him. By contrast the scribe here at least on the surface seems to be sincere. That at least is Mark's understanding. Matthew in his gospel says that the scribe came with a question to test Him (Matt 22:35). Both things may be true, perhaps the scribe wanted to test Him in order to evaluate just how sound and wise a teacher He was. He quite clearly recognises that Jesus is a superior rabbi or teacher. We know this because he has noted how Jesus masterfully handled the previous questions thrown at Him and answered wisely. Therefore He comes to Him with a question regarding which commandment of God ought to take priority.

This is an important point. When we speak of something being first there may be two meanings. We might speak of something being first in chronological terms. In terms of time, which command did God give first. Or we might speak of first in terms of priority or importance. Which is the first, or most important command God gave. The scribe here is asking about the importance or priority of the commands. He was trying to get Jesus's opinion of what summed up the Torah in the best way. To understand why he came with this question we need to know a little about the lawyers of Israel.

The scribes (lawyers) had determined that the Jews were obligated to obey 613 statutes of the law. Where we might wonder did they get these 613. Well that's how many letters there were in the Decalogue. If you take the Ten Commandments in Hebrew and count the number of letters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613. From this they deduced that there must be 613 laws! Of these 613 laws 365 were negative precepts, things you were not to do, and 248 were positive, things you were to do. One of their favourite exercises was getting together to discuss which of these divine commandments was the greatest. They debated endlessly on this issue and had even developed a system that divided the laws into two categories, the “heavy or great” and the “light or little.” We might puzzle today about why they devoted so much time and energy to this. But we must remember that they operated under a works righteousness based system. Since it was necessary, but

practically impossible to follow all 613 laws it was vital to prioritise the laws in order to keep the more important ones. So simply put, this scribe wants to know which law to follow in order to best please God and earn the most “salvation credits.” Let's continue.

28 절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오늘은 주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마지막 논쟁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이전 두 논쟁과 이번 케이스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몇 명인가입니다. 앞의 두 경우에서 여러 무리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이어서 사두개인)이 예수께 접근했습니다. 물론 분노한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오늘은 한 명의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여 와서 말했다고 암시합니다(마 22:34-35). 그러나 마가는 서기관이 답을 구하러 개인적으로 온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기관 개인에 대한 마가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의 변호사, 즉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유대인 저술가들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복사하고, 주석을 쓰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나 법적 조언이나 법률 용어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호출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다른 차이점은 이 서기관의 접근 방식과 태도입니다. 이전의 그룹은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도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분과 마주한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속이려고 왔습니다. 대조적으로 여기 서기관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진실해 보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Mark 의 이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마 22:35). 두 가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은 예수님이 얼마나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생인지 평가하기 위해 시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더 훌륭한 랍비 또는 선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전의 질문들을 어떻게 능숙하게 다루시고 현명하게 대답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먼저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순으로 어떤 것이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먼저 주셨는가? 또한, 우선순위나 중요성 측면에서 먼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즉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여기에서 서기관은 계명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는 토라 Torah 를 가장 잘 요약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변호사)들은 유대인들이 613 개의 율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이 613 조항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십계명에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십계명을 가지고 글자 수를 세어 보면 613 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

들은 613 개의 율법이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613 개의 율법 중 365 개는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계율이었고, 248 개는 행해야 할 긍정적인 계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함께 모여 이 계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지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끝없이 논쟁을 벌였고, 율법을 '엄중하고 중요한 것'과 '가볍고 사소한 것'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 체계까지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왜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제도 아래에서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13 개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많은 “구원 점수”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9 Jesus answered him, “The first of all the commandments 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30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Again the Lord Jesus beautifully deals with the question He is given. Once again He takes His questioner back to the bible. He quotes from Deuteronomy 6:4–5, this is the creedal affirmation of both Judaism and Christianity. It reads as follows;

4“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5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is is the great confession of faith that even today pious Jews recite each morning and evening. Every synagogue service begins with these verses being recited. It is known as the “Shema.” It gets this name from the first word (*shema*) of the confession which means, “hear, listen, pay attention or obey.” To what are the hearers to lend their ear? To the fact that Yahweh is their God.

The people of Israel were surrounded by pagan nations who worshipped a multitude of deities. As we know from a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these pagan deities were an ever present draw on the affections of the Israelites. Again and again God's people turned from Him and offered their love to pagan gods. These of course were no gods at all. They were the creations of men given a shape in stone, wood or metal. So the Shema served as an important reminder that they were to focus their attention, and affection on the one and only true God of the universe. There is no pantheon of Gods, there is just one God. But of course it is not merely sufficient that we recognise that our monotheistic God exists. God you see gave Himself totally and completely in a loving commitment to His people. He held nothing back. There is no more loving act that one can perform than to sacrifice themselves for another. Therefore a reciprocal response is called for from us. We are called to offer Him our undivided and unrestrained love and affection. We are to hold nothing back. So when we read here of the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it is a way of saying that one should love God fully at every level. Let us briefly touch on each element in turn.

29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30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질문에 완벽하게 대응하십니다. 그분은 질문자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신명기 6 장 4~5 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조입니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암송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회당 예배는 이 구절을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쉐마 Shema”로 알

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를 의미하는 이 성경 구절의 첫 단어(들으라, Shem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신을 숭배하는 이방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이방신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에게 사랑을 바쳤습니다. 물론 이들은 전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 나무,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쉼마는 그들이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관심과 애정을 드려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한분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을 완전히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전적인, 제한 없는 사랑과 애정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요소를 차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We are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s**. In ancient Jewish thinking the heart was the centre of the will and volition. It was at the centre of one's life and represented the person and their motivations in life. Therefore where a person heart was directed everything else followed after. This means that God must be the object of our heart's desires. He, and He alone must be number one in our thoughts and affections. How easy it is for us to put other things before Him, but this is known as idolatry.

It is also easy to love God when things are going well. But what about in the dark and discouraging seasons of life?

When we truly love God we are joyful and happy even when the circumstances of life are challenging. That you see is the definition of true love. That it remains strong and unaffected no matter the situation. Nothing shakes the love we feel for our children, they may be rude, disrespectful, rebellious and uncaring, but we love them regardless.

우리는 마음 **heart** 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마음이 뜻과 의지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 사람 자체와 그 삶의 동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각과 애정의 일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보다 다른 것을 우선에 두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둡고 힘든 시기에 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삶의 상황이 어려워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인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못되고, 무례하고, 반항적이고, 냉정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We are to love God with all our **souls**. In Jewish thought human beings were living, breathing spirits. So just like with “heart” when they spoke about the “soul” it denoted the whole person. The

soul represents the core of your being. Therefore we are to love God with the deepest, purest, truest parts of us.

우리는 **영혼 soul** 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살아 숨쉬는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혼”에 대해 말할 때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람 전체를 나타냅니다. 영혼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깊고 순수하며 진실한 부분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We are to love God with all our **minds**. When we speak of the mind we are thinking of the intellect. Some things in life require us to actively switch off our brains to believe them. Santa Claus or the tooth fairy and most Hollywood movies for example. But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of merely blind, unthinking adherence. It can stand up to careful and detailed examination. We are not called to believe in, or accept things that are illogical or without reason. On the contrary we are asked to think, test (1 Thess 5:21) and reason (Isa 1:18) before placing our trust. So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to direct our thoughts and all our mental capacities to knowing Him more clearly and fully. Believers who say things like, “I’ve no interest in theology or studying, I just want to love Jesus” are missing the point. Using our intellect helps us love Him more fully and completely. Furthermore when we engage our intellects it enables us to think clearly and properly about God. Ultimately when one loves God with one’s whole mind there can be no confusion about who God is, what He desires from us and what is right before Him.

우리는 **마음 mind** 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지성을 생각합니다. 삶에서 간혹 어떤 것들을 믿기 위해서는 두뇌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타클로스나 이빨요정,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심하고 세밀한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없이 받아들이고 믿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믿기 전에 생각하고, 시험하고(살전 5:21), 이성적으로 따져보라(이사야 1:18)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을 더 명확하고 완전하게 아는 데 우리의 생각과 모든 정신적 능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신학이나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성을 활용하면 우리가 그분을 더욱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지성을 활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Finally, we are to love God with all our **strength**. When we think of strength we picture the physical aspects of our nature. God has given us physical strength and power which enables us to act and impact the world around us. We are to employ or direct all the strength, power and might He has given us into serving and honouring him.

This Jesus tells this scribe is the first command. It also neatly summarises the first table of the law. The commands one to four that God gave to Moses on Mount Sinai. They deal with our relationship with God. Since there is nothing more pressing or more important in life than this it is right that this be of first importance. But after God, what comes next? Let's read on and find out.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 strength** 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생각할 때 인간 본성 중에서 육체적 측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하고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1~4 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째 계명임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고 알아보시다.

31 And the second, like *it*, is th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There i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The first command is to love God completely. The second is similar, we are to love our neighbours (other people) as we love ourselves. How do we love ourselves? I like the following description given in Johnson and DeWalt's commentary;

“Freely and readily, sincerely and unfeignedly, tenderly and compassionately, constantly and preserveringly.”

Or to put it far more simply. We love ourselves a lot.

As we have spoken about before when we looked at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there was considerable debate among the Jews as to who exactly were their neighbours. They had a very narrow definition of this word. They had determined that a “neighbour” was a fellow Jew. Someone from the same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 as themselves, or a full proselyte (convert to Judaism). As a consequence a non-Jew, a Gentile was not a neighbour and could be shunned or ignored. There was no mandate, so they thought to love such people. They were wrong, and being wilfully ignorant of God's commands. When we look at what God commanded we see that He had called upon His people to love the “strangers” amongst them (Lev 19:34, Deut 10:19).

Therefore we cannot properly and fully love God if we do not keep His command to love others. This command encompasses all people. It's easy, or at least easier to love people who look, think, speak and behave like us.

Koreans commonly refer to themselves and their nation as our country “Ouri nara.” But when they say this who are they including in this description. People with Korean ancestry, people with Korean blood. I know that they are not including me, or the many other foreigners who have made their homes here. I think foreigners are often excluded and made to feel that they don't really belong. They may be tolerated but they are not really neighbours.

So the Lord's words are a timely reminder that the call to love others does not come with limits or conditions. We are to love those which which we are familiar but also the strangers in our midst. There is a very good reason for this. All, not some people are lovingly created in God's image. This means we are to love them as being part of God's creation. They are important to Him and therefore they should be important to us.

The Lord Jesus here quotes from the book of Leviticus. In Leviticus 19:18 we read,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nor bear any grudge against the children of your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I am the Lord.

The scribe had requested one commandment, but Jesus gave him two. Love for man, in Leviticus (19:18), grows out of love for God. So when we combine these two commands we discover that they encompass all ten of the commandments God gave to Moses. The first four are covered by the command to love God. When you love Him you don't have any other God. You don't make a false idol. You don't take His name in vain. And you remember to worship Him.

The remaining 6 are dealt with here in the call to love other human beings. When you properly love others you're respectful to your parents. You have respect for authority. You have a respect for life, so you don't kill people. You have a respect for moral purity, for this reason you don't commit

adultery. You have respect for others' property, therefore you don't steal. You have respect for what is true, as a consequence you don't lie. Finally you are grateful and have respect for what God has provided and you're content, therefore you don't covet.

In truth the two commands Jesus gave cannot be separated. Let's think about it logically. We cannot live in obedience to God if we do not love Him whilst loving other people. And equally we cannot please God if we love Him and yet hate other people. The two must work in tandem. We must love God and the people He has created. For this reason the Lord Jesus gave the scribe a perfect summation of the whole law. There are no greater commands than these. If you get these two right you will be living a life that is pleasing and honouring to God. The Mosaic Law that the Jews lived under came to an end at the cross. That is why we are no longer under the burden of the law. However our duties toward God and to other people are basic human responsibilities. For this reason they will always remain valid and binding upon us. Let us see how the scribe responds.

31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비슷한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사랑합니까? 저는 Jo hnson 과 DeWelt 의 논평에 나오는 다음 표현을 좋아합니다.

"자유롭고 기꺼이, 진실하고 거짓 없이, 부드럽고 자비롭게, 끊임없이 그리고 끈기있게."

또는 훨씬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정확히 누가 그들의 이웃인지에 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라는 단어에 대해 매우 좁은 정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또는 완전한 개종자(유대교로 개종)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유대인,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므로 피하거나 무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므로 같은 유대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레 19:34, 신 10:19).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외모, 생각, 말과 행동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민족과 나라를 '우리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표현 안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인 조상을 가진 사람들,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외국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외국인들은 종종 배제되고 그들이 실제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용인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에는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는 점을 시기적절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친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들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중요하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레위기 19:18 에 기록하길

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서기관은 한 가지 계명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19:18)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을 결합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모두를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신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짓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권위를 존중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덕적 순결을 존중하므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존중하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중하고 만족하므로 탐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계명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율법 전체의 완전한 요약을 서기관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모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계명은 항상 유효하며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32 So the scribe said to Him, “Well said, Teacher. You have spoken the truth,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no other but He. 33 And to love Him with all the heart, with all the understanding, with all the soul, and with all the strength, and to love one’s neighbour as oneself, is more than all the whol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Mark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record the scribe's reaction to Jesus answer. I spoke earlier about the apparent sincerity of this particular scribe. Unlike the other religious leaders we have recently examined this man seems to be genuine and honest.

In the other exchanges Jesus had with the Jewish leaders they never openly acknowledged that He adequately answered their questions. Obviously their pride and arrogance wouldn't permit them to admit they had been soundly beaten in an argument. But here the scribe openly confesses that Jesus has presented him with the perfect answer. How better could the law of God be summarised. Jesus words it seemed had spoken to this man's heart. He was beginning it seems to get a deeper spiritual understanding of the faith he thought he understood.

He affirms that there is just one God and that we are to love Him with all that we have. He also agrees that to love one's neighbour is also vital. Significantly given that this man was an expert in the law and probably a Pharisee what he adds next is telling. He correctly identifies what is of greater value to God. It is easy for us to think that religious observance, and ceremony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God. This was certainly true of the Pharisees. They loved to give the appearance of great piety and religious devotion. They wanted to impress those watching by how devoted to God they were.

We often fall into the trap of imagining that we are pleasing God, or at least doing our duty and earning merit points when we simply attend church, or take part in any ritual of worship. We are greatly mistaken. God of course does want us to come to church, He does desire our worship. But what God really wants from us is our love and devotion to Him and to other people.

The scribe here references the sacrifices that took place daily in the temple. The expression “whole burnt offerings” refers to sacrifices in which the whole of the offering was burned on the altar. The expression “sacrifices” refers to the sacrifices and offerings in which only a part of the sacrifice was burned on the altar. The remaining parts were given to the priest and part was eaten by the worshippers. This was a necessary and vital part of the Jewish religion. It was what God had commanded them to do. So the scribe here is not saying that these animal or produce sacrifices are not essential but rather that the sacrifices of the heart are even more important. A thousand burnt offerings made from a heart that is cold and indifferent to God does not mean more to Him than a single act of love done in His name. Let us find out how this episode concludes.

32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33**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의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가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서기관들의 반응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 작가입니다. 앞서 이 서기관이 진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논쟁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예수께서 그에게 완전한 답을 제시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은 듯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신앙에 대해 더 깊은 영적 이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그가 율법의 전문가였고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다음에 덧붙인 내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종교적 관습과 의식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확실히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경건함과 종교적 헌신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독실한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거나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또는 최소한 의무를 다하고 공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오기를 원하시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성전에서 날마다 바쳐진 제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번제 whole burnt offerings”는 제물 전체를 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제사 sacrifices”는 제물의 일부만을 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일부는 예배자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이러한 동물이나 농작물을 바치는 제사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제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차갑고 무관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천 번의 번제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단 한 번의 사랑보다 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보시다.

34 Now when Jesus saw that he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But after that no one dared question Him.

The Lord Jesus acknowledges that this man has answered wisely. Unlike the other Jewish leaders this man appears open to hear the truth and to be transformed by it. It is this attitude that elicits the remark by Jesus that He is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What does it mean that a person is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It means that he or she is facing truth honestly and is not simply interested in defending a predetermined viewpoint. Most of the Jewish leaders Jesus encountered were stubborn and fixed in their prejudices. They were not willing to really listen to the truth. For this reason they were a long way from the kingdom. Not this man, he had the courage to openly affirm that what Jesus said was profound. Others in the vicinity would have heard him say these things and in effect give his support or endorsement of Jesus. Perhaps in doing so, he lost some friends and gained some enemies. So this scribe is close in the sense that he is in the presence of the one who has brought the kingdom of God. He has shown that he understands the meaning and spirit of Jesus's teachings, and that he knows the way into the kingdom.

So whilst he has not yet arrived his direction of travel is encouraging. Did the man ever arrive? Will we meet him one day in eternity? His fate is left unresolved.

We are not told whether he took the final step and put his trust and faith in Jesus. This was probably intentionally done by Mark. I think he wanted his readers to question their own position in regard to the kingdom. It's a good question to ask ourselves “How far am I from the kingdom?” Being near, or close will not be good enough.

The episode concludes with Mark telling us that this was the final challenging question the religious leaders put to Jesus. They had tried without success to trap, trick, humiliate or discredit Him.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find the Jesus teaching in the temple.

34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후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변화되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 사람이 진리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단순히 미리 정해진 관점만을 옹호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은 완고하고 편견

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왕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심오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증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사실상 그가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는 친구도 잃고 적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 앞에 있다는 의미에서 가깝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며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고무적입니다. 그가 과연 도착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영생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단계를 넘어 예수를 신뢰하고 믿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Mark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독자들이 왕국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에 의문을 가져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왕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던진 마지막 도전적인 질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속이고, 모욕을 주고, 불신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Loving God with all we have

How romantic are you? Are you often thinking up little ways to surprise your spouse. Are you constantly seeking methods to keep that flame of passion alive and well. I hope that you are. I once worked with a man whose wife slipped little love letters into his lunch box every day. He was always happy to read about how his wife loved him as he ate his ham and cheese sandwich. Or what about the story of the Parisian painter Marcel de Leclure.

He is famous for writing the longest expression of love ever written. Marcel was greatly in love with Magdalene de Villalore. So in 1875 he decided to write her a letter to express his love. The letter comprised only the French for “I love you” (Je t'aime) one million eight-hundred and seventy-five thousand times. Why that particular number? It was a thousand times the calendar year of the 1875. Oh, you might say, how sweet and romantic. I wish my husband or wife were more like Marcel. Well not so fast. You see he didn't actually write it himself. He hired a scribe to write it for him. So maybe not quite as romantic.

Today we read about the command to love God with all that we have;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We are not to hold anything back. It's an ideal all believers support. But I wonder if in some ways we are a little like Marcel. Our love for God might be genuine, just as Marcel's was for Magdalene. But just like him are we not looking for shortcuts or means of not fully giving ourselves in love. You see Marcel may have loved Magdalene but having to spend many hours writing “I love you” didn't really appeal. He liked the idea of the gesture but didn't really want to put in the work.

So I wonder what part we are holding back. Is it our hearts? Are we secretly locked in a battle of the heart. Is our love for God in competition with something else? The bible calls this idolatry. Is it our soul? At our very cores are we truly and deeply loving God? Is it our minds? Are all our mental capacities focused upon Him. Is it our desire to apply all of our intellects to getting to know and

love Him more fully? Finally, is it our strength? Are all of our physical energies directed toward honouring and pleasing Him or just a portion.

Of course to properly love God with all we have is not easy. The world around us, our sinful natures and the evil one all work against us developing a loving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our creator God. Let us all pray for the Spirit's help in this area. May we never forget that as God's people we are to love him with all we have.

1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당신은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당신은 배우자를 깜짝 놀라게 할 작은 이벤트를 자주 생각합니까? 당신은 열정의 불꽃을 생생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한 남성의 아내는 매일 도시락에 작은 사랑 편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햄치즈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아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쪽지를 읽고 항상 행복해했습니다. 아니면 파리 화가 마르셀 드 르클루르(Marcel de Leclure)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쓰여진 사랑의 표현 중 가장 길게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Marcel은 Magdalene de Villalore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1875년에 그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사랑해"(Je t'aime)라는 표현만 1,875,000번 사용한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 특정 숫자일까요? 1875년도의 숫자에 1,000을 곱한 숫자였습니다. 와 정말 달콤하고 낭만적이야. 내 남편이나 아내도 마르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가 그것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신 써줄 서기관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 뜻과 힘. 아무것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르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르셀이 막달레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으려고 지름길이나 다른 수단을 찾지 않습니까? 마르셀은 막달레나를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사랑해"라고 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표현할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직접 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주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마음인가요? 우리는 비밀리에 마음의 싸움에 간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것과 경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인가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뜻인가요? 우리의 모든 정신적 능력이 그분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더 완전하게 알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성을 활용하기를 소망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인가요? 육체적 에너지를 그분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까?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죄된 본성, 사탄 모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분야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함을 결코 잊지 않

기를 바랍니다.

2 Loving others as ourselves

In popular culture the word “love” is often used in a trivial way. I love kimchi, I love riding my bike, I love super-hero movies. It's perhaps not surprising that we often misunderstand the type of love God calls us to express toward, not just people we like or who are like us, but towards all people.

The love that God calls us to exhibit is a radical life changing kind of love. It includes loving our enemies and persecutors (Matthew 5: 43-48). It also encourages us to love without the expectation of receiving love in return (Luke 6: 27-36). But the most challenging call is the one we have read about today. The command to love God with all of our heart and love our neighbour as ourselves. To love others as we love ourselves is a challenge. It requires a unique and special kind of love. This special expression of love comes only from God. God's common grace allows for all men made in His image to love, but this special kind of love is a love that is set apart for Christians.

As sinful people we frequently fail to love others as we should. Our arrogance and pride so often get in the way. So let us all pray that God in His mercy and grace will give us the will, desire and the ability to truly love others as we should.

2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대중 문화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소하게 사용됩니다. 김치를 사랑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사랑하고, 슈퍼 히어로 영화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유형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랑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원수와 박해자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마태복음 5:43-48).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대 없이 사랑하라고 격려합니다(누가복음 6:27-36).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독특하고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common grace 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별된 사랑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오만함과 자존심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듯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